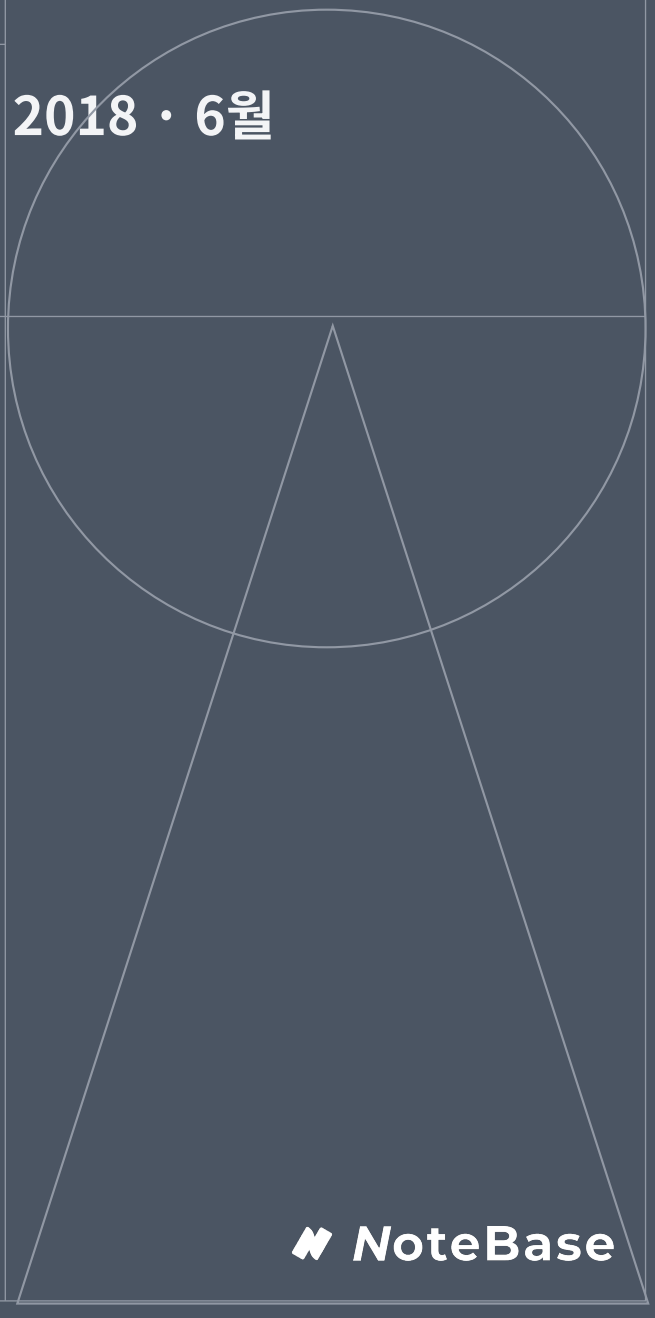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8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8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18 · 6월

문 1.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물, 남사스럽다, 쌉싸름하다, 복숭아뼈

② 까탈스럽다, 걸판지다, 주책이다, 겉울음

③ 찰지다,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

④ 개발새발, 이쁘다, 덩쿨, 마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덩쿨'은 비표준어이므로 **'덩굴' 또는 '넝쿨'**로 써야 한다. 함께 제시된 '개발새발', '이쁘다', '마실'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등물', '남사스럽다', '쌉싸름하다', '복숭아뼈'는 모두 2011년에 추가로 인정된 표준어이다. 각각 **'목물', '남우세스럽다', '쌉싸래하다', '복사뼈'**와 함께 쓸 수 있다.

② O: '까탈스럽다', '걸판지다', '주책이다', '겉울음'은 모두 2016년 표준어 추가 결과에서 인정되었다. '까탈스럽다'는 조건이 복잡하고 엄격하거나 성미가 별스러워 맞추기 어려운 데가 있다는 뜻이고, '걸판지다'는 매우 푸지거나 동작·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는 뜻이다. '주책이다'는 일정한 줏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을 뜻하는 '주책'에 '이다'가 붙은 표현으로, **'주책없다'와 함께 인정되는 표준형**이다. '겉울음'은 드러내 놓고 우는 울음이나 마음에도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을 뜻한다.

③ O: '찰지다',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는 모두 2015년에 추가로 인정된 표준어이다. '찰지다'는 '차지다'의 원말이고, '잎새'는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이는 나무의 잎사귀를 뜻한다. '꼬리연'은 긴 꼬리를 단 연이며, '푸르르다'는 **'푸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④ X: '덩쿨'이 비표준어이므로 표준어끼리만 묶인 것이 아니다. 길게 뻗으면서 다른 물건을 감거나 땅바닥에 퍼지는 식물의 줄기는 **'덩굴' 또는 '넝쿨'**로 쓴다. '개발새발'과 '이쁘다'는 표준어이며, '마실'도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라는 뜻에서는 표준어이다. 다만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뜻할 때는 '마실'이 아니라 '마을'로 써야 한다.

NoteBase

문 2. 문장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것은?

①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②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③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④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한국 정부는'과 '항의하였다'가 자연스럽게 호응하며, **항의의 내용과 대상**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로 알맞게 제시되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국 정부는'이 주어이고 '항의하였다'가 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는 항의의 내용을, '일본에'는 항의의 대상을 나타내므로 문장 성분 사이의 관계도 자연스럽다.

② X: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피동 표현 '요구되다'에 다시 '-어지다'를 붙인 **불필요한 이중 피동**이다.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로 고친다.

③ X: '이것은'을 주어로 내세웠으나 뒤에서는 '생각이 든다'로 끝내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긋난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로 고치면, 이것을 보고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④ X: '한국이 자력으로'와 호응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타낼 **서술어가 빠져 있다**.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로 고친다. '획득할'을 넣으면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획득하다'라는 내용이 '가능성'을 꾸미게 된다.

NoteBase

문 3. 6·25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은?

① 손창섭, 『비오는 날』
② 박경리, 『토지』
③ 장용학, 『요한시집』
④ 박완서, 『엄마의 말뚝』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박경리의 『토지』는 **1897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작품 속 시대가 6·25전쟁 이전에 끝나므로, 전쟁 체험과 그 상처를 다룬 다른 작품들보다 관련성이 낮다.

선지별 해설

① 손창섭, 『비오는 날』: 전쟁 직후 피난지 부산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동욱·동옥 남매의 모습을 그린다. 이들의 가난과 무기력한 삶을 통해 **전쟁이 남긴 삶의 황폐함**을 드러내므로 6·25전쟁과 밀접하다.

② 박경리, 『토지』: 1897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를 배경으로 최참판 집안과 여러 인물의 삶을 그린 대하소설이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사회 변화 및 민족의 수난을 다루며, **이야기의 시대적 범위가 6·25전쟁 이전에 끝난다**.

③ 장용학, 『요한시집』: 6·25전쟁 중의 포로수용소 체험을 주요 소재로 삼는다. 누혜의 죽음과 동호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존재 문제**를 탐구하므로 전쟁 상황이 작품의 핵심 배경이다.

④ 박완서, 『엄마의 말뚝』: 어머니와 딸의 삶을 그린 연작소설로, 특히 『엄마의 말뚝 2』에서는 **6·25전쟁 중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상처**가 드러난다. 어머니는 수술 후 환각 속에서 당시의 공포와 고통을 다시 겪으며, 이를 통해 전쟁의 비극이 오랜 세월 뒤에도 지속됨을 보여 준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 생활, 포로수용소 체험, 가족의 상처를 다룬 다른 세 작품과 비교하면, ②의 『토지』가 6·25전쟁과 가장 거리가 멀다.

NoteBase

문 4.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달도 차면 기운다.

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

③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는 **사람의 한평생에는 전환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권세가 오래가지 못하고 쇠한다는 '권력의 무상함'을 직접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권력의 무상함'은 권력이 영원히 유지되지 않고 변하거나 사라진다는 뜻이다. 각 속담이 단순한 삶의 변화와 권세의 쇠퇴 중 무엇을 나타내는지 구별해야 한다.

① O: '달도 차면 기운다'는 보름달이 둥글게 찬 뒤 다시 이지러지듯, 한창 번성하던 것도 결국 쇠하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권세도 절정에 이른 뒤에는 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권력의 무상함과 연결된다.

② O: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아름답게 핀 꽃도 오래도록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듯, **부귀영화나 권세가 오래 계속되지 못함**을 비유한다. 여기서 '열흘'은 권력이 지속되는 실제 기간이 아니라 번성한 상태가 오래가지 않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③ X: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는 물이 흐르다가 굽이를 이루듯, **사람의 삶에도 전환기가 있다**는 뜻이다. 삶의 흐름이 바뀌는 계기를 말할 뿐, 번성하던 권세가 쇠하거나 사라진다는 뜻을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

④ O: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는 세도가 좋을 때 찾아오던 사람들도 그 처지가 보잘것없어지면 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꽃이 시드는 것은 권세의 쇠퇴에, 나비가 오지 않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외면에 대응하므로, **권세를 잃으면 인심도 달라짐**을 통해 권력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중에서

①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②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④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어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구세계에서 유입된 병원균이 인디언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유럽은 **구세계**이고, 아메리카는 **신세계**이다. 글은 콜럼버스가 도착한 아메리카를 신세계라고 부르며, 인디언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을 구세계에서 들어온 병원균으로 설명한다. 선지는 두 지역의 명칭을 서로 바꾸었다.

② O: 둘째 문단에서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X: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 원인은 무기가 아니라 **천연두 감염**이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거슬러 올라온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고, 한 마을의 인구가 몇 주 사이에 2000명에서 40명으로 줄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④ X: 100만 명가량이라는 수치는 글쓴이가 어렸을 때 미국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던 내용이다. 글은 고고학적 발굴과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처음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인구가 **약 2000만 명**에 달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선지는 글에서 바로잡은 과거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NoteBase

문 6. <보기>의 괄호에 알맞은 한자성어는?

<보기>
일을 하다 보면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의 수행 과정에서 부분적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 정작 일 자체를 뒤엎어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흔히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 )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① 개과불린(改過不吝)
② 경거망동(輕擧妄動)
③ 교각살우(矯角殺牛)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에 해당한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와 의미가 통한다.

공통 해설

교각살우(矯角殺牛)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이다. 작은 결점을 고치려는 행동이 지나쳐 **더 중요한 것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는 상황을 비유한다. 지문의 '부분적 결점'은 소의 뿔에, '본질을 해치는' 결과는 소를 죽이는 데 대응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역시 작은 문제를 없애려다 훨씬 큰 손해를 입는다는 뜻이므로, 괄호에는 교각살우가 들어간다.

NoteBase

문 7. <보기>의 단어에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보기>
· 꽃내음 [꼰내음]
· 바깥일 [바깐닐]
· 학력 [항녁]

① 중화
② 첨가
③ 비음화
④ 유음화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세 단어 모두 기존 자음이 **비음인 ㄴ이나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바깥일'에서 ㄴ이 새로 덧붙는 과정과 받침이 ㄴ으로 바뀌는 과정은 구별해야 한다.

공통 해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주변 자음의 영향으로 비음인 ㄴ·ㅁ·ㅇ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특히 받침 ㄱ·ㄷ·ㅂ은 ㄴ·ㅁ 앞에서 각각 ㅇ·ㄴ·ㅁ으로 바뀐다. 이 문제에서는 각 단어에 다른 변동이 함께 나타나는지보다 **세 단어에 모두 비음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꽃내음: 받침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뀐 뒤, 뒤의 ㄴ의 영향으로 다시 ㄴ으로 바뀐다. '꽃내음 → [꼳내음] → [꼰내음]'에서 ㄷ → ㄴ이 비음화이다.

바깥일: 합성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바깥' 뒤에 '일'이 결합하여 ㄴ이 첨가된다. 이어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고, 이 ㄷ이 첨가된 ㄴ 앞에서 ㄴ으로 바뀌어 [바깐닐]이 된다. '바깥일 → 바깥닐 → [바깓닐] → [바깐닐]'에서 **ㄴ이 새로 생기는 첨가**와 **ㄷ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는 서로 다른 변동이다.

학력: 맞닿은 ㄱ과 ㄹ이 각각 비음인 ㅇ과 ㄴ으로 바뀌어 [항녁]으로 발음된다.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것과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것이 모두 비음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 단어에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비음화이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단어의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의존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②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③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명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④ 그는 이지적이다. <명사>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백을 안다'의 '백'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조사가 붙었다고 모두 명사인 것은 아니며, 수사도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참을 만큼'의 '만큼'은 용언의 **관형사형 '참을'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로, 참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 사람만큼'의 '만큼'은 체언 '그 사람'에 붙어 그 사람과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② O: '아니 분다'의 '아니'는 동사 '분다'의 뜻을 부정하여 '불지 않는다'는 의미를 만드는 부사이다.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의 '아니'는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적으로 쓰여 놀람이나 의아함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③ X: '백을 안다'의 '백'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명사가 아니라 **수사**이다. 수사도 명사와 마찬가지로 체언에 속하므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할 수 있다. '백 말을 한다'의 '백'은 뒤의 명사 '말'을 꾸며 그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④ O: '이지적이다'의 '이지적'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한 명사**이다. '이지적 인간'의 '이지적'은 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뒤의 명사 '인간'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NoteBase

문 9. 1960년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후 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② 4·19혁명의 영향으로 현실비판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③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④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민족문학·민중문학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주로 **1970년대 이후**이다. 1960년대에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둘러싼 **순수·참여 논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1960년대에는 전후 문학에서 두드러진 전쟁의 상처와 허무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사회 현실과 개인의 삶을 새롭게 포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전후 문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② O: 4·19혁명을 계기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문학에서도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려는 경향이 힘을 얻었다. 여기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전에는 현실 비판 문학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혁명의 경험이 현실 비판과 참여 의식을 강화했다**는 뜻이다.

③ O: 1960년대에는 문학의 예술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순수문학과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및 작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참여문학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핵심 쟁점은 **문학이 사회 현실에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가**였다.

④ X: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문단의 주요 쟁점으로 활발히 전개된 시기는 **주로 1970년대 이후**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농민의 삶, 분단과 민주화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이 논의들이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에도 관련 문제의식의 단초는 있었으나, 그 시기의 대표적인 문학 논쟁은 순수·참여 논쟁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손 자: 할아버지. 여기 있는 ㉠밭을 우리가 다 매야 해요?
할아버지: 응. 이 ㉡밭만 매면 돼.
손자: 이 ㉢밭 모두요?
할아버지: 왜? ㉣밭이 너무 넓으니?

① ㉠: [바슬]
② ㉡: [반만]
③ ㉢: [받]
④ ㉣: [바치]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밭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이 붙었으므로 받침 '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바틀]**로 발음한다. 'ㅌ'이 'ㅅ'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바슬]은 잘못된 발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밭을'은 **[바틀]**로 발음한다. 홑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으면 받침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연음이 일어난다. 따라서 '밭'의 받침 'ㅌ'을 '을'의 첫소리로 옮기며, 'ㅅ'으로 바꾸어 [바슬]로 발음하지 않는다.

② O: ㉡ '밭만'은 [반만]으로 발음한다.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ㅌ'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받만]이 되고, 이어 뒤의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ㄷ]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 결과 [반만]이 된다.

③ O: ㉢ '밭'을 **단독으로 발음하거나 뒤에서 끊어 읽으면** [받]으로 발음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ㅌ'을 대표음 [ㄷ]으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문의 '밭 모두요'를 끊지 않고 이어 읽으면 뒤의 'ㅁ' 앞에서 비음화가 일어나 [반 모두요]가 된다. 단어 자체의 발음과 뒤 단어까지 이어 읽는 발음을 구분해야 한다.

④ O: ㉣ '밭이'는 [바치]로 발음한다.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하면 각각 [ㅈ, ㅊ]으로 바뀌어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밭'에 조사 '이'가 붙었으므로 'ㅌ'이 [ㅊ]으로 바뀐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비판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폴 매카트니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해서는 짚어 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다.

① 채식주의자
② 식육 생산의 실상
③ 동물을 먹는 행위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채식주의자는 도축장의 실상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제시되며,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글은 식육 생산의 불편한 진실과 이를 외면한 채 동물을 먹는 태도, 그러한 외면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비판한다.

공통 해설

이 글의 비판은 **육식의 불편한 진실과 이를 외면하게 하는 구조**를 향한다. '식육 생산의 실상'은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부정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동물을 먹는 행위'는 동물이 고기가 되는 과정을 짚어 보지 않고, 그 행위가 자신의 선택이라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않는 태도와 연결된다. '폭력적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진실을 어느 수준에서는 알면서도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하지 못하도록 조직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 세 대상은 생산 과정, 소비 행위, 이를 지속시키는 인식 구조라는 관계 속에서 비판받는다.

반면 '채식주의자'는 도축장의 실상을 알게 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첫머리에 등장한다. 글은 채식주의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므로 **채식주의자는 비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뒤의 '그러나'도 채식주의자를 비판하려는 전환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점으로 논의를 옮기는 표현이다.

NoteBase

문 12. 나이와 한자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62세 - 화갑(華甲)

② 77세 - 희수(喜壽)

③ 88세 - 백수(白壽)

④ 99세 - 미수(米壽)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희수(喜壽)'는 **77세**를 이르는 말이므로 나이와 한자어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화갑(華甲)은 환갑(還甲)과 같은 말로, **61세**를 이른다. 62세는 환갑의 이듬해인 '진갑(進甲)'에 해당한다.

② O: 희수(喜壽)는 **77세**, 곧 일흔일곱 살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77세－희수(喜壽)'의 연결은 바르다.

③ X: 백수(白壽)는 **99세**를 이른다. '百'에서 '一'을 빼면 '白'이 되는 것을 100에서 1을 뺀 99에 연결한 말이다. 88세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미수(米壽)'이다.

④ X: 미수(米壽)는 **88세**를 이른다. '米'를 풀어 보면 '八十八'의 모양이 되는 데서 나온 말이다. 99세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백수(白壽)'이다.

NoteBase

문 13. 맞춤법 표기가 가장 옳은 것은?

① 이렇게 하면 되?

② 이번에는 꼭 합격할께요.

③ 서로 도우고 사는 게 좋다.

④ 그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제가'는 '저'에 주격 조사 '가'가 붙은 올바른 형태이다. '알다'는 어미 '-ㅂ니다' 앞에서 어간의 **'ㄹ'이 탈락**하므로 '압니다'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되다'의 어간 '되-'만으로 문장을 끝낼 수 없으므로 종결 어미 '-어'를 붙여야 한다. '되어'가 줄면 **'돼'**가 되므로 '이렇게 하면 돼?'로 고친다.

② X: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약속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ㄹ게요'**이다.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께요'로 적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꼭 합격할게요.'로 고친다.

③ X: '돕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와', '도우니'처럼 어간의 'ㅂ'이 바뀌지만, **자음으로 시작하는 '-고' 앞에서는 'ㅂ'을 유지**한다. 따라서 '도우고'를 '돕고'로 고쳐 '서로 돕고 사는 게 좋다.'로 쓴다.

④ O: '제가'는 '저'에 주격 조사 '가'가 붙은 형태이다. '압니다'는 '알다'의 어간 '알-'에 어미 '-ㅂ니다'가 붙으면서 **'ㄹ'이 탈락한 형태**이다. 따라서 '그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는 맞춤법에 맞는 문장이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었다.

②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③ 인천으로 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

④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갖은'은 명사 '고생'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나머지 밑줄 친 단어는 모두 **부사**이며, 문장 속에서 꾸미거나 이어 주는 대상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갖은': 관형사이다. '여러 가지의' 또는 '온갖'이라는 뜻으로, 뒤의 명사 '고생'을 꾸민다. 이 문장의 '갖은'은 동사 '갖다'의 활용형이 아니라 **체언을 꾸미는 독립된 관형사**이다.

② '바로': 부사이다. 여기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꼭 '이것'임을 집어 강조한다. **부사는 체언 앞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뒤에 대명사 '이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형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③ '그리고': 부사이다. 앞 문장 '인천으로 갔다.'와 뒤 문장 '배를 탔다.'를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품사는 부사이다.

④ '방글방글': 부사이다.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자꾸 웃는 모양을 나타내며, 동사 **'웃는다'를 꾸민다**.

품사를 비교하면 '갖은'만 관형사이고, '바로', '그리고', '방글방글'은 모두 부사이다.

NoteBase

문 15.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①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②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③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 깨나 했나 보다.

④ 동해로 가는김에 평창에도 들렀다 가자.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하고'의 '하고'는 '나와'처럼 상대를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 '나'에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밖에'는 '그것 말고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 명사 '수'는 앞말과 띄어 쓰되, '밖에'는 '수'에 붙여 **'활용될 수밖에 없다'**로 고친다.

② O: '하고'는 이 문장에서 상대를 나타내는 조사로, '나와 사이가 멀어졌다'의 '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나하고'**로 쓰며, 나머지 부분의 띄어쓰기도 바르다.

③ X: '깨나'는 어느 정도 이상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명사 '공부'에 붙여 쓴다. '공부 깨나 했나 보다'를 **'공부깨나 했나 보다'**로 고친다.

④ X: '김'은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관형어 '가는'과 띄어 쓴다. 뒤의 조사 '에'는 '김'에 붙여 쓰므로 '가는김에'를 **'가는 김에'**로 고친다.

NoteBase

문 16. <보기>에 나타난 작품 감상의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는 지금도 이광수의 『무정』 작품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특히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 이형식이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 오라고, 문명을 얻어 오라고 ……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 달라고 ……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라고 부르짖는 부분에 가면 금방 내 가슴도 울렁거려 나도 모르게 "네, 네, 네"라고 대답하고 싶단 말이야. 이 작품은 이 소설이 나왔던 1910년대 독자들의 가슴만이 아니라 아직 강대국에 싸여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① 반영론적 관점
② 효용론적 관점
③ 표현론적 관점
④ 객관론적 관점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작품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조국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독자가 받는 감동과 영향**에 초점을 둔 감상이다. 이러한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이 효용론적 관점이다.

공통 해설

효용론적 관점은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관점이다. 작품을 읽으며 얻는 즐거움과 감동, 깨달음이나 태도의 변화 등이 감상의 근거가 된다.

<보기>의 감상자는 『무정』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이형식의 말에 자신도 호응하고 싶어진다고 한다. 또한 1910년대 독자뿐 아니라 21세기의 독자도 작품을 통해 조국을 생각하며 감동을 받는다고 평가한다. 작품의 가치를 독자의 정서적 반응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찾으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시대와 조국을 언급했더라도 감상의 중심은 **작품에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가 아니라 독자가 어떤 감동을 받는가**에 있다. 작가의 내면이나 창작 의도를 중심에 둔 것도, 작품 내부의 구성과 표현만을 분석한 것도 아니다. 이처럼 감상의 중심이 독자에게 있다는 점이 다른 관점과 구별되는 기준이다.

NoteBase

문 17.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주워서 버렸다'의 '버렸다'는 동작의 완료를 덧붙이는 말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실제 동작**을 나타낸다. 따라서 '줍다'와 '버리다'가 모두 본용언인 구성이다.

공통 해설

본용언은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고, 보조 용언은 본용언 뒤에서 그 뜻을 보충한다. 뒤의 용언이 **별개의 실질적인 동작을 나타내는지**, 앞말에 시도·진행 등의 의미만 더하는지를 문맥에 따라 구별한다.

'주워서 버렸다'는 쓰레기를 줍는 동작에 이어 그것을 버리는 동작을 나타낸다. '주워서'의 '줍다'와 '버렸다'의 '버리다'가 각각 실질적인 뜻을 지니므로 **본용언+본용언** 구성이다. 여기서 '버리다'는 앞 동작이 끝났다는 의미만 더하는 보조 용언이 아니다.

반면 '아는 척한다'의 '척한다'는 실제로 아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다는 뜻을 보충한다.

'먹어는 본다'의 '본다'는 눈으로 본다는 별개의 동작이 아니라 **시험 삼아 해 봄**을 나타내며, 보조사 '는'이 끼어 있어도 이 기능은 유지된다.

'알아 간다'의 '간다'도 장소를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 가는 과정이 계속 진행됨을 나타낸다. 이 세 표현은 각각 '알다', '먹다', '알다'를 본용언으로 하고 뒤의 보조 용언이 그 뜻을 보충하는 구성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화랑도(花郞道)란,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花郞徒)라 한다.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 변태섭, 『화랑도』 중에서

①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화랑도(花郞道)'를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으로, '화랑도(花郞徒)'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풀이하여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의는 어떤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첫 문장은 '화랑도(花郞道)'를 마음과 몸을 닦고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적 흐름으로, 둘째 문장은 '화랑도(花郞徒)'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설명한다. 이처럼 **두 용어의 의미를 밝혀** 독자가 화랑도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② X: 체험담은 글쓴이가 직접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글에는 **글쓴이 자신의 경험이 제시되지 않는다**. 신라 청소년들의 수련과 나라를 지키려는 기풍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X: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려면 반박할 주장이나 그 주장을 검토하기 위한 바탕이 드러나야 한다. 이 글은 다른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화랑도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한다.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는 부분도 **나라별 기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며, 반론을 위한 전제가 아니다.

④ X: 통계적 사실은 수치로 나타낸 자료이고, 사례는 설명할 내용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 등의 예이다. 이 글에는 **수치 자료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는다**. 고구려·백제·신라를 언급한 부분은 나라를 지키려는 기풍이 있었고 특히 신라에서 활발했다는 일반적인 설명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시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노라 ㉠ 三角山아 다시 보쟈 ㉡ 漢江水야
㉢ 故國山川을 써ᄂᆞ고쟈 ᄒᆞ랴마ᄂᆞᆫ
時節이 하 ㉣ 殊常ᄒᆞ니 올동 말동 ᄒᆞ여라

– 김상헌

① ㉠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다.

② ㉡은 여전히 사용하는 명칭이다.

③ ㉢의 당시 국호는 '조선'이다.

④ ㉣은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의 '삼각산'은 인왕산이 아니라 **북한산**의 다른 이름이다. 백운대·인수봉·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우뚝 솟은 모습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 '삼각산(三角山)'은 **북한산의 다른 이름**이다. 백운대·인수봉·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나란히 솟아 있어 붙은 이름으로, 인왕산과는 다른 산이다. 화자는 조국을 떠나며 삼각산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

② O: ㉡의 '한강(漢江)'은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강의 명칭**이다. '한강수'는 한강의 물을 뜻하며, 화자는 한강에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건네어 조국에 대한 애착과 귀환의 소망을 드러낸다.

③ O: ㉢의 '고국(故國)'은 화자 김상헌의 조국인 **조선**을 가리킨다. 여기서 고국은 멸망한 옛 나라가 아니라,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그리워하는 자기 나라라는 뜻이다. '고국산천'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에는 강제로 조국을 떠나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④ O: ㉣의 '주상(殊常)'은 평소와 달리 수상하고 어수선하다는 뜻으로, **병자호란 뒤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나타낸다. 이 작품은 청과의 화친을 반대한 김상헌이 청으로 끌려가며 지은 시조이다. '올동 말동'은 돌아올지 돌아오지 못할지 알 수 없다는 뜻이므로, 당시의 불안한 상황과 귀환에 대한 염려가 연결된다.

NoteBase

문 20. <보기>는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소설 속 지명은?

<보기>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 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 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 )을/를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다시 나는 그 편지를 읽어 봤다. 또 한번 읽어 봤다. 그리고 찢어 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 )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① 삼포
② 서울
③ 거제
④ 무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편지를 찢고 서울로 돌아가는 '나'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장면은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결말이다. 두 괄호에는 '나'가 떠나는 고장인 **무진**이 들어간다.

공통 해설

제시문은 김승옥의 '무진기행' 마지막 부분이다. '나'는 무진에서 만난 여성을 서울로 데려오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지만, 끝내 편지를 찢어 버리고 서울로 돌아간다. 마지막에 느끼는 부끄러움은 편지에 쓴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떠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각을 드러낸다.

두 괄호는 모두 **서울과 대비되는, 떠나야 할 고장**을 가리킨다. 편지의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라는 말에서 서울은 여성을 데려오려는 목적지이고, 첫째 괄호는 여성이 떠나올 곳인 무진이다. 이어지는 팻말은 '나'가 무진읍을 떠나고 있음을 알리므로 둘째 괄호에도 무진이 들어간다.

NoteBase